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5. 바칼라우

바칼라우는 소금에 절여 말린 대구이다. 말린 대구를 먹는 것은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비롯, 이탈리아 또 북유럽 국가 등 많은 유럽 지역의 공통된 음식문화인데 역사적으로 해양 국가였던 포르투갈에서는 수백 년 동안 뱃사람들은 물론 서민들의 식량이 되어 준 고마운 생선이라고 한다. 바칼라우를 주시처럼 먹어 온 포르투갈에서는 조리법이 하루에 한 가지씩 365 가지가 넘는다고도 하고 혹은 1,000 가지가 넘는다고도 하니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것 같다.



지 불살스튜 등과 더 없이 잘 어울릴 듯했다.

금새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내가 주문한 '바칼라우 아 브라스' 요리는 잘 으갠 대구살을 으갠 감자, 삶은 계란, 병아리콩, 그리고 푸른 채소와 섞어서 올리브 오일을 뿌린 요리였다. R의 돼지 불살스튜는 투박한 토기 그릇에 담겨서 포슬포슬한 밥과 함께 나왔다. 둘 다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뭔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단순하고 정답게 느껴졌다. 우리는 비노 베르제를 한 모금 마시고 기대에 부풀어 생선 처음 먹어보는 포르투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칼라우 크로켓은 거칠거칠한 표면에 푸른 채소, 감자, 베이컨 조각들이 드문드문 박혀 있어 먹음직스러웠다. 큼직하기도 해서 양이 적은 사람은 크로켓 두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았다. 얇은 먹어 보고 싶어서 하나 집어 들었는데 주문을 받으러 왔다. 메뉴는 매우 간단했고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칼라우 요리를 먹겠다고 했다. R은 계속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더니 테이블마다 붉은 토기 그릇에 담긴 먹음직한 요리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저게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보세사스 데 포르투' 라고 한다. 돼지 불살과 콩 등을 넣어 만든 스투라고 했다. R은 두말 없이 그것을 먹겠다고 했다. 우리는 택시 기사 안나가 가르쳐 준 비노 베르제, 그린 와인도 마셔 보기로 했다.

주문이 끝나고 우리는 드디어 바칼라우 크로켓을 먹어 보았다. 생각보다 기름지지 않고 짭짤한데 대구살은 갈아 넣은 것이 아니라 곱게 두들겨서 만든 것 같았다. 생선 맛이 많이 나지 않고 보통 크로켓보다는 단단하고 쫄깃했다. 처음 먹어 보는 바칼라우 크로켓을 음미하는 동안 와인이 왔다. 포르투 현지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비노 베르제는 맑고 청아한 녹색을 띤 와인이었다. 하지만 우아한 색깔과는 달리 와인 맛은 대단히 소박하고 약간 거칠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비노 베르제는 바칼라우 요리나 돼

'바칼라우 아 브라스' 는 담백하고 부드러웠다. 역시 생선 맛은 많이 나지 않는다. 신선한 생선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절여 말린 대구살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불리고 곱게 찢고 하는 동안 생선 고유의 맛은 대폭 순화되는 것 같았다. 대신 대구와 함께 들어가는 부재료들의 맛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R은 돼지 불살스튜를 열심히 먹고 있었다. 국물이 있는 고기 스투를 밥과 함께 먹으니 한국 음식을 먹는 것 같다고 한다. 처음 먹어 본 포르투갈 음식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맛없지도 않았으며 마치 집에서 점심상을 받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은근했다.

한창 먹고 있는데 까만 곱슬머리 아저씨가 와서 인사를 했다. '타베르나 상부 안토니우' 주인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왔다고 하니 '아, 멀리서 오셨군요!' 하면서 무척 반가워했다. 북대서양을 마주한 이베리아 반도의 끝 포르투갈에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가 머나먼 곳처럼 느껴지는가 보다. 아니면 포르투 동네 손님들 사이에 끼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낯선 외모의 두 모녀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것일까? 친절한 사장님은 서비스로 비노 베르제를 한 잔씩 더 가져다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한다.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는 듯 마음이 편해져서 낯선 포르투갈 음식이 더 맛있어져 버렸다.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현영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  
**(213) 820-3789 LA**  
**(714) 224-8394 OC**

Laura Hair 플러튼

## 로라 헤어

30주년 기념

### BIG SALE

- 헤어컷 + 펴 + 코팅 or 컬러 **\$40<sup>UP</sup>**
- 남자 헤어컷 **\$10<sup>UP</sup>**
- 여자 헤어컷 **\$12<sup>UP</sup>**
- 헤어컷 + 컬러 **\$20<sup>UP</sup>**
- 헤어컷 + 펴 **\$30<sup>UP</sup>**
- 컬러 + 트리트먼트\* (탈모방지) **\$30<sup>UP</sup>**
- 특수펌 **\$40<sup>UP</sup>** (상하고 약한 모발을 건강한 모발로)

예약 전화 **714-900-9607**



“

팬데믹으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죠.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지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은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Tom, San Diego**

**500만 이상**

캘리포니아 내 5백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P-EBT로 식품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P-EBT** CDSS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p-ebt.org에서 P-EBT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